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비전채플, 찬양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찬양채플
9:00AM(비전채플), 11:00AM(찬양채플)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쟈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찬송하는 소리 있어(찬44/새19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오세영 장로 2부/이국선 장로 3부/최두현 집사 4부/조윤정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I AM(T. Clydesdale 편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Media **방송실**
- 유아 세례식 Infant Baptism..... Altogether **다같이**
2부/강은우(Ivan) 3부/양예준(Isaac)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골로새서(Col.) 3:18-19 Altogether **다같이**
4부/사사기(Judg.) 6:11-24
- 말씀 Message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Supreme Jesus(18) 부부는 삼각관계입니다

4부 Rev. Sungwoo Lee **이성우 목사**

빼앗기지 않아야 할 것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사랑은 언제나 오래참고, 말씀 앞에서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찬404/새304장), 사랑을 노래합니다
-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가정 같은 교회

Church like a family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저는 '가정'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요즘은 잘 찾아 볼 수 없지만, 가정 분위기 나는 Friendly's라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식당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얼마전 Claim Jumper 식당을 갔는데, 모처럼 집밥 같은 미국 음식이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대학교 때, 룸메이트가 집에 다녀오면 가져오는 홈메이드 apple cider, chicken pot pie 맛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우리의 마음에 엄마가 만든 집밥과 같습니다. 대학 갔다가 돌아온 딸이 엄마가 만든 밥을 찾듯이 말입니다.

미주 동부에서 목회할 때, 교회 표어를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지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는 가정을 닮은 곳이고, 가정 역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닮은 곳입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얼굴 생김새가 비슷해도 성격과 좋아하는 것들이 참 많이 다릅니다. 교회도 한 주님을 섬기는 지체들이 성격이 다릅니다. 인격이 부족하여 이기적인 자녀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 착하고 인품이 갖추어진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상적이고 완벽할 수 없듯이, 가정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모순과 갈등이 다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 회초리가 있듯이, 교회에도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애들이 뭘 아냐?" 이런 말로 아이들이 칼 가지고 장난치며 동생 얼굴을 긁는 일을 괜찮다고 할 부모가 없듯이, 교회 역시 연약한 지체에 상처를 입히는 무분별한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갈등 속에 집을 나간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출'한 자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 앉습니다.

교회 안에는 파를 나누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 자녀들이 엄마 파 아빠파 나뉘어 싸운다면 더 이상 가정이 아니듯, 교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교회는 격차가 없어야 가정 같은 교회가 됩니다. 49년된 교인이나, 지난 주 온 교인이 한 형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집안의 장남이, 이제 태어난 늦둥이를 차별하여 가족 모임에서 제외 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막 식구가 된 사위와 며느리를 낯설다고 차별하고 내치는 가정이 있다면 비극입니다. 교회는 익숙하지 않은 지체를 가족 같이 안아주는 공동체입니다. 미숫가루가 잘 풀어져야 제 맛이 나듯이, 서로가 잘 용해되어 하나되는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베델교회라 좋습니다.

My heart is touched just by hearing a word 'family.' It's hard to find nowadays, but there was a restaurant called Friendly's that felt like home. Just hearing the name warms my heart. I went to Claim Jumper restaurant not too long ago. It's been awhile since I had American food. It's almost like a home-cooked American meal, and it was delicious. It tasted just like homemade apple cider and chicken pot pie that my roommate used to bring back from home during my college years. In our hearts, family is like our mom's homemade food. It's like when a college daughter comes home from school, she looks for mom's food.

When I was doing ministry in East Coast, I once made a church slogan, "Church like Family, Family like Church." Truly, church is like family, and family is like church, a body of Christ. Even though siblings grow up under the same parents, their faces may be similar but their personalities and what they like are very different. Church is the same in that we all serve one God, but our personalities are all different. Like some of our children may be selfish and lacking in character, even in church, not everyone is good and has good character. Not everything can be ideal and perfect in families and in church.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all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that occur in families and churches can be justified. Like a home may have a spanking rod, churches also have punishment. The Bible tells us that parents who does not punish their children does not really love them. No parents would allow their children to play with knives and scratch sibling's face, and then dismiss it as "what do kids know?" Church also needs to be careful not to hurt vulnerable members with undiscerning actions. That's because some children have left home from this kind of conflicts. My heart sinks just to hear the word 'runaway' child.

There should not be divisions in a church. When a family is divided, mom's side and dad's side, it is no longer a family. Church is the same. To be like a family, a church should not have divisions. Whether you've been a member for 49 years or just joined last week, when we can show that we are siblings of one family, then church is like family. Eldest son does not discriminate youngest and dismiss him from family gatherings. It would be a tragedy if a family discriminates a newly joined son-in law or daughter-in-law because they're strangers. Church is a community that embraces unfamiliar people like family. Bean powder must be dissolved completely to taste good. In the same way, God wants church to forgive each other, and be unified like family. I'm glad Bethel Church is that kind of church.

주일 설교 시리즈: 골로새서 강해 (18)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Supreme Jesus!



부부는 삼각관계입니다

(골 3:18-19)

1. 우리 부부가 자주 싸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싸운 이유보다는 싸우는 매너 때문에 더 큰 싸움을 했던 적은 없습니까?

2. 오늘 본문 18-19절에서 부부관계는 삼각관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 '복종(submission)'의 문제는 두 사람의 관계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지만, 딱 하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요?(참고/창 2:18)

4. 부모와 자식은 혈육관계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부부의 관계는 무엇이라 할까요? 참고 구절을 읽고 답해 보십시오. (참고/ 창 2:22-23, 전 4:9-12)

5. 골로새서가 쓰여지던 당시 여성에 대한 문화적인 편견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은 부부관계의 혁명적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_____

2) _____

6. '복종'과 '사랑'의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입니까?(참고/마 26:39, 엡 5:23)

적용하기



■ 적용찬양: 사랑은 언제나 오래참고, 말씀 앞에서

선교 후기
캄보디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저희 BYM 선교팀은 캄보디아 수도에서 약 2시간 떨어진 지역의 LIALOHA PATHWAY INTERNATIONAL SCHOOL에서 일주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뜨거운 햇살과 익숙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매 순간이 귀하고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선교에는 BYM 고등학생들, 교사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어른들까지 총 28명이 함께 VBS, 안경 나눔, 사진 사역, 가정 방문, 특별 의료 및 구호 사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봉사를 넘어, 세대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학생들과 어른들이 한 팀이 되어 하루하루를 격려하며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BYM 학생들이 선교

를 위해 3개월 전부터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선교 현장에서 놀라운 열매로 이어졌고, 복음 제시 시간에는 학생들의 2/3 이상이, 인근 공립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손을 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VBS와 함께 진행된 안경 나눔, 주민 가정 방문 등의 사역을 통해 많은 지역민들이 교회로 향했고, 주일예배는 이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함께한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습니다. 더위 속에서도 기쁨으로 섬기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 주신 어른들의 헌신 또한 큰 감동이었습니다. 함께했던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금 깨닫고, 지금도 그 아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는 단지 누군가를 돕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전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

온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여정, 그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캄보디아 땅에서 자라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피어나고, 다음 세대와 함께 복음을 품고 나아가는 새로운 선교 모델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귀한 사역이 베델교회 안에서 매년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의약품으로 도움을 주신 집사님 부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의 섬김과 기도 덕분에 부족함 없이 모든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종선 집사



사역 소개
베델 리사이클링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지키는 믿음의 손길



기후 위기의 시대, 교회가 먼저 일어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모든 생명이 숨 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순종의 걸음을 내딛읍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 "무엇이든지 너희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골 3:17)

베델 리사이클링(Bethel Recycling)은 단순한 재활용 캠페인이 아닌 창조세계의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실천하고, 버려지는 자원들을 이웃 사랑

과 선교 사명으로 전환하는 영적 운동입니다. 재활용품 하나가 선교지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보호하는 일로 연결됩니다.

사역의 목표와 실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창조세계 보호: 교회 내 수거함 배치,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
- ② 선교 자금 마련: 수익 전액을 선교지에 지원
- ③ 공동체 참여 확산: 모든 연령대의 자발적 봉사 참여 유도
- ④ 사회적 약자 돌봄: 기후 위기 속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의식 확산

예를 들어, 성도 한 분이 매주 리사이클 병 2개를 가져오신다면, 일주일에 약 \$250, 한 달이면 \$1,000의 선교헌금이 모이고, 이 금액은 전 세계 선교사님들께 직접 전달됩니다. 실제로 이 사역을 통해 여러 사역지의 선교사님께 총 \$4,000의 선교헌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아래와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 ① 재활용품 모으기: CA CRV 표시가 있는 플라스틱 병, 유리병, 알루미늄 캔을 깨끗이 비우고 압축하여 모아 주세요.
- ② 교회 내 리사이클 수거함에 넣기: 비전센터, 식당 앞 등 교회 곳곳에 마련된 지정 수거함에 재활용품을 담은 백을 넣어 주세요.
- ③ 자원봉사자로 섬기기: 성도님들과 학생 모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봉사 시간 인증도 드립니다!

베델 리사이클링은 단순한 분리수거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걸음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후대에게는 깨끗한 환경을, 선교지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작은 병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지키는 거룩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합시다!

윤대호 집사

신앙 상담(3)

주님, 왜 마음이 우울하고 짜증이 나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지어 거듭났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감정에 종종 붙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불안하고 슬픈 마음이 들지'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 '말 시키지 마. 만사가 귀찮거든' '주님이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우리는 이럴 때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이런가? 등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일명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에 빠져 의욕을 상실한 채 무력감, 고립감, 허무감, 죄책감, 자살충동 등에 사로잡히는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일종의 정신질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거의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생기기 때

문입니다. 주님을 모를 때는 죄를 심각하게 의식하지 못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는 양심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죄를 지으면 심적 고통이 찾아올 뿐 아니라,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하게 살 것을 요구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은 죄인가요? 우울증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 결과 치료나 예방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울증을 '죄의 결과'로 보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핍'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표증으로 보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 접근하면 모든 우울증은 극복될 수 있다는 식의 일방적인 접근태도도 버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울증은 인간이 어떤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신 스스로에게서 일어나는 증상이지 하나님이나 사탄의 역사는 아닙니다.

우울증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잠 4:23)에 병이 생긴 것입니다. 이 병은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자신의 아픈 마음을 갖고 자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히 4:16) 십자가가 바로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로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고통 그리고 슬픔과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셨습니다. 만일 마음이 우울하고 짜증이 난다면, 우리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면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겁니다. "여호와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시 34:18).

황성철 목사

훈련 간증
제자반

함께했기에 갈 수 있었던 길!



제자훈련을 통해 저는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과의 교제의 기쁨, 그리고 거룩함으로의 초대를 경험하였습니다.

고백하건대, 그동안 저는 제 자신이 제자인 줄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과 주신 떡에 배불러 무리 속에서 멀리서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자녀의 고난을 통해 어렵게 훈련의 자리까지 나올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자녀나 주변 사람들이 아닌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였고, 저 또한 깨닫지 못했던 나의 죄성을 말씀

과 사건들을 통해 하나하나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문제의 해결을 원하며 나온 자리에서 오히려 더 큰 문제들과 마주했고, 주일 설교와 큐티를 통해 그 문제들과 씨름했던 시간들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바로 예수님을 믿은 저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주님을 믿고 있었지만 나의 인생 경험과 자라온 문화 속에서 형성된 가치관과 정체성을 말씀 위에 다시 세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명제를 순간순간 되새기며 믿음의 기초를 다시 놓는 시간은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반복적으로, 일생을 통해 거쳐야 할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기에 가능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는 말씀처럼, 제자반을 통해 묶여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기쁨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제자훈련을 통해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잘되고 평탄한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닮은 딸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소망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인생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박민정 집사



교회학교 - VBS 후기
K-1/유년부

GOD IS GOOD! ALL THE TIME!



나는 VBS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VBS에서 게임을 맨날했어요. 기억나는 게임은 손을 쓰지않고 공을 찾는 게임이었어요. 그 다음에 VBS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마지막날 carnival day때 햄스터처럼 공에 들어가서 타는 것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내 TA가 좋았어요. 왜냐면 내 TA는 너무 재밌고 친절했어요. Praise to God 하고 춤추는게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 난 VBS TA 되고싶어요.

박서린(Kindergarten)

I learned from VBS that everyone could be a part of God's family. I thought I could not be in God's family because I sinned every single day without any excuse. But the message taught me that everyone who learns God's message will be in his family. My favorite thing from VBS was the fun and joy that I had at the science station. My favorite VBS song is "God is good all the time" because I like the lyrics and melody. I liked the carnival, too. But I thought VBS was more than just fun. We came here to learn about God while we are having fun! I hope you enjoyed VBS like me!!!

안주아(Kindergarten)



저는 올해 VBS를 처음 참여했어요. VBS를 처음 나가니 조금 긴장이 됐어요. 하지만 도착하고나서 친구를 만나니 안심이 됐어요. VBS를 하면서 가장 재미있던 것은 바ই블 스테이션에서 보물찾기한 것과, 찬양할 때 Praise Team 따라 함께 춤출 때였어요. 하나님, 이번에 VBS를 갈수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가게 도와주세요.

이하은(1학년)

I loved everything about VBS, especially playing dodgeball on the game station. I really enjoyed being with my friends. I learned that Jesus is fully God and fully human, and that He came to die for our sins and make us God's children.

전지민(1학년)

This was my first time on the VBS praise team. I had fun leading worship with my friends and seeing everyone do the motions. My favorite was the bubble station—it showed how Jesus is 100% God and 100% human. I want to join VBS every year. God is good all the time!

Elizabeth Park(2학년)

이번 여름 방학은 VBS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기뻛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앞으로도 VBS를 통해 하나님

의 사랑을 배우고 전하고 싶습니다.

전예원(3학년)

VBS was a wonderful and meaningful experience. As a first-time Crew TA, I felt nervous and unsure, since I had never served at church before. But through Sunday meetings, prayer, and support from my crew leader, kids, and teachers, I gained confidence. Seeing my kids enjoy God's Word made me happy and thankful. I'm so glad I was part of VBS and look forward to serving again next year!

Kate Suh(6학년)

This was my first time serving as a station TA, and though I started with excitement, I quickly felt anxious and overwhelmed. But through preparation and support from leaders, God gave me strength and patience. As the week went on, I found joy in serving and watching the kids grow in faith. I truly experienced God's presence and am grateful for this meaningful and unforgettable opportunity to serve at VBS.

Yean Kim(8학년)

This year's VBS was one of my most meaningful experiences. Though it was tiring, I grew to love both the program and my students. I hoped they would understand God's deep love and begin a relationship with Him. In the process, God changed me too—showing me His compassion and love through serving and sharing the Gospel.

Joseph Seo(9학년)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총성/훈련/BCA: 정승락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Joy/화평/섬김: 박성권 목사
- 사랑/QT: 조태현 목사
- 은혜/예배: 서동민 목사
- 믿음/공동체: 조동현 목사
- 운유/말씀/QTin: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 예삼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삼채플: 이형석 전도사
- 예삼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성우 목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 정티나 목사
- 영아부/아기학교: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관해 전도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삼 워십: 조요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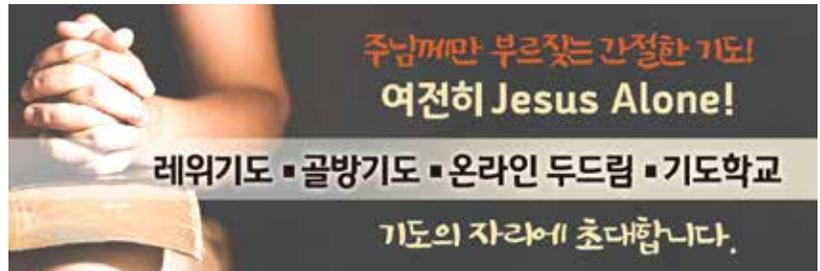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운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인: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제 6기 베델기도학교 모집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따라 기도의 영
성을 훈련하고, 올해 '여
전히 Jesus Alone'의 비
전을 따라 주님만 의지하
는 기도의 용사로 세움받
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골방 밖에서 하나님과 같이 할수있는 능력을 결정한다"

'여전히 Jesus Alone'이라는 믿음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는 무릎으로 증명됩니다. 베델 기도학교는 기도에 주저함이 있는 분들,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 기도의 삶을 원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기도의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귀한 훈련의 자리입니다. 체계적인 기도 훈련을 통해 기도의 영성을 배우고, 여전히 예수님 한 분께만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로 세움받기 원하는 모든 분들을 이 귀한 훈련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 ▶ 교육기간: 8월 14일(목)-11월 13일(목)
- ▶ 개강 예배 및 오리엔테이션: 8월 14일(목)
- ▶ 접수 기간: 7월 13일(주일)-8월 10일(주일)
- ▶ 접수 방법: 분당 앞 기도 부스 또는 교회 홈페이지
- ▶ 회비: \$20(책자와 식사 제공)
- ▶ 문의: 양승화 집사 (714)512-1236, prayer@bkc.org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7,8월)	7/20:	①부-이상태	②부-이석희	③부-최동주	④부-채은진
	7/27:	①부-이창열	②부-이여송	③부-최병웅	④부-최안젤라
	8/3:	①부-정우영	②부-임낙현	③부-최재호	④부-이해원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7,8월) | 7/19: 허윤호 7/26: 황정환 8/2: 고스티브 8/9: 박성규

강단꽃(7,8월) | 7/13: 김은숙, 오영옥, 이상노 7/20: 이유경, Sarah Bae 7/27: 정윤아, 한보영 8/3: 김학남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탁정호(소아과), 간호사-박수잔, 오선희 다음주 | 의사-정치일(신경정신과), 간호사-김현욱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더)
-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기성당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창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제9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 'Discipleship: 고난'을 주제로,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수진과 함께 고난을 제자의 길로 인도하는 디딤돌로 새롭게 조명해 보세요. 시원하고 깊이 있는 신학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양한 특별 순서와 식사, 간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삽지 참고)
일시: 7월 18일(금) 저녁 7시 30분, 7월 19일(토) 오전 6시, 7월 20일(주일) 1-4부 예배

◆ 수요저녁예배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과 뜨거운 찬양으로 한주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말씀: 7월 16일 저녁 7시 30분, 배흥수 목사
문의: 김종학 집사 (949)285-9408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함께 부를 찬양을 미리 만나세요!



◆ 오이코스 1000 여름방학인 7월에 하나님을 향해 더욱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오이코스 1000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이코스 1000 예배는 일천 명이 함께 모여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드리는 간절한 예배입니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온 세대가 함께 모여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의 뜨거운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예배 일시/장소: 7월 26일(토) 오전 6시, 본당
강사: 김요셉 목사(원천침례교회 담임)
예배 특송: Joy & 화평 목장 (담당 박성권 목사)

◆ 제6기 베델기도학교 모집 안내 체계적인 기도훈련을 통해 기도의 영성을 배우고, 여전히 예수 한분께만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로 세움받기 원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7면 참고)
교육기간: 8월 14일(목)-11월 13일(목) (총 14주)
개강 예배 및 오리엔테이션: 8월 14일(목) 오후 6시 30분
접수 방법: 본당 앞 기도 부스 또는 교회 홈페이지
회비: \$20(책자와 식사 제공)
문의: 양승화 집사 (714)512-1236, prayer@bkc.org

◆ 교회학교 큐티인 섬머챌린지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여 교회학교 아이들도 큐티인 섬머챌린지를 시작합니다! 7월 14일(월)부터 8월 9일(토)까지 매일 큐티를 하고 주일에 책을 제출하는 아이들은 8월 10일(주일) 상상이 있습니다. 여름의 햇살처럼 주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타오르는 이번 여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간: 7월 14일(월)-8월 9일(토)
대상: 교회학교(영아부-초등부, 소망부)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CIM 한어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런닝클럽' 많은 청소년이 하나님을 알고 체험해서 예수만 향해 달려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간/장소: 8월 6일(수)-9일(토), 갈릴리 수양관
등록: 큐알코드 및 CIM 단체 카톡방 구글 폼 링크
회비: \$150 (다자녀 회비: 첫째-\$150, 둘째-\$125, 셋째-\$100)
베델 교인이 아닌 친구 회비: 친구와 초청한 CIM 학생 모두 \$125
문의: 잔정훈 집사 (714)318-2183, 이성우 목사 (818)294-8535



◆ 초등부 여름수련회 'We Are' 많은 학생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간: 8월 10일(주일)-12일(화)
장소: Irvine Outdoor Education Center
등록: 큐알코드 및 초등부 단체 카톡방 구글 폼 링크
회비: \$200(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세요.)
문의: 이정연 전도사 (860)716-0541



◆ 상담해 드립니다 개인 생활과 가정, 자녀 문제 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매주 금요일 상담 협동목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박성권 목사 (718)490-9931



◆ Bethel Grace Church(BGC) EM 성전 예배 Bethel Grace Church가 EM 성전 화재 이후 수리를 마치고, 오늘 주일(13일)부터 다시 EM 성전에서 예배드립니다.

◆ 교역자 동정 BYM 영어고등부 최소영(Kristin) 전도사가 7월 6일(주일)부로 사임하였습니다.

◆ 축하해 주세요
- 오늘(13일) 2부 예배에 강명성/임지현 집사의 아들 강은우(Ivan)와 3부 예배에 양정규/용수연 집사의 아들 양예준(Isaac)의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 이용권/윤희수 집사 가정에 아들 호연(William)이 7월 7일(월) 태어났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유길상 집사님(유정선 권사의 남편)께서 7월 7일(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Table with 3 columns: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Contains details for AWANA, BYM, CIM, and church news editors.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COLOSSIANS LECTURE (18)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Supreme Jesus!

Couples Are In Love Triangle Relationships

(Colossians 3:18–19)

1. What is the reason that we as couples fight so often? Has there been a case when the fight became more intense due to the manner we fight instead of the reason for the fight?

2. From today's verses 18-19, how can you tell a couple's relationship is a love triangle?

3. The challenge of 'submission' cannot be resolved by the couples alone. Although God saw that 'all was good' at the time of the creation of the world, there was one thing that He did not see as good. What was it? (Ref: Gen 2:18)

4. It is said that the parent and child have a blood relationship. What does the bible say is the relationship between a couple? Please answer referring to the following verses. (Ref: Gen 2:22-23, Eccles 4:9-12)

5. When we consider the attitudes toward women in the period when the Colossians was written, we can consider today's lessons in the bible regarding a couple to be revolutionary. What are they?
 - 1) _____
 - 2) _____

6. What is the secret to successfully managing the requirements of 'submission' and 'love'? (Ref: Matt 26:39, Eph 5:23)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